

北미술 '금강산 묘길상도' 국박에 기증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9년 상반기 5명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6건 19점을 기증받았다"며 7월 3일 기증품들을 공개했다.

기증품 중에는 20세기 북한 화가 선우영(946~2009)이 그린 '금강산 묘길상도(妙吉祥圖)' 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강산 묘길상도' 는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외무부 장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79)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기증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수된 첫 북한미술작품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한승주 이사장이 2006년 윤이상음악제 참관 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천리마 제작소에서 선우영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했다.

선우영 작가는 북한을 대표하는 진채세화의 대가로서 공훈예술가와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다. 그의 60여 점의 작품은 북한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선우영의 작품인 '금강산 묘길상도' 는 작가 특유의 세화기법과 진한 채색으로 금강산 만폭동 소재 고려 마애불 묘길상과 주변 풍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불교방송 사장 추천 절차, 공모 여부 논란

이각범 불교진흥원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해명

후보추천위 구성하지 않고
후보 출마의사 확인 안 해
절차적 하자 비판도 제기
"불교방송 이사회 의견 수용"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월 3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불교진흥원 집무실서 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 해명하는 이각범 이사장.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최근 BBS불교방송 사장후보로 선상신 현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편성제작국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진흥원은 사장 추천절차 관례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외부 공모를 하지 않아 제기된 지적에 "불교방송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각범 진흥원 이사장은 7월 3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15층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장후보 추천은 불교방송 사장으로서 어떤 인물을 제안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진흥원 이사회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며 "그간 외부인사로 선출한 전직 사장들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기에 내부 인사를 복수 추천했다. 불교방송 이사회서 이번 후보추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추천안을 반려한다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외부공모로 인한 선거국면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유명 대학총장 직선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직선제를 선택했던 대학들이 더 이상 선거를 하지 않으려 한다. 4년마다 학교가 선거판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흥원 이사회는 기존의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진흥원 이사회는 그간의 관례와 달리 이사회가 직접 적합한 후보를 물색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사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7명의 사장후보 논의과정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개인별 출마 의사조차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최종후보로 추천된 최윤희 국장에 대해서는 이각범 이사장이 직접 이력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최 국장을 들러리로 세우려 하진 않았다. 출마 의사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불교방송의 미래 인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력서를 내라고 했다"며 "7명의 이사들이 4시간 넘도록 심사숙고한 결정이다. 내 의견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장은 간담회 내내 선상신 현 사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 사장은 회사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도 현 사장에 대한 추천은 30분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며 "경쟁후보인 최윤희 국장도 경영에 대한 식견이 있고, 후보의 다양성면에 있어서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각 후보들의 경영계획서를 받았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밝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이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관례대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했다면 이처럼 오해를 받진 않았을 것 같다"며 사실상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외부 공모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한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 불교방송 이사는 "사장 추천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도전할 수 있게 기회의 문은 공평히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진흥원 결정은 한편으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불교방송 희망노조가 제기한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작비 사적인 지출 의혹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주요 인사들과의 토론 자리를 위해 사용했을 뿐 절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본질을 호도한 희망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토로했다.

불교교리 부합한 공유경제 모색

고대 불자교우회, 7월 4일 제1차 불교경제경영포럼 개최

불교의 공동체 사상을 반영한 공유경제를 활용, 불자경제경영공동체를 추진하는 포럼이 열렸다.

고려대 불자교우회(회장 최평규)는 7월 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불교경제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성식 명예교수가 기조발제 '불교경제공동체를 복원하여 불국정토를 구현하자' 를 통해 "불교경제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가정, 직장, 사찰에서 불교경제관에 의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경제공동체"라며 "사찰과 재가자 단체 중심의 개별 불교경제공동체를 한데 묶는 메타불교경제공동체로 나누어 불교경제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윤 명예교수는 이어 "소유보다 임대와 공동소유를 강조하는 공유경제, 새로운 경조사 문화의 시범실시, 불교은행 설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종단은 메타불교경제공동체를 위한 플랫폼만 구축하고 개별불교경제공동체를 지원해 나간다면 다양한 경제공동체로의 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는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장과 포럼 고문단장을 맡은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장은 "불교경제경영포럼은 온오프라인 경제계 수행자 인드라망 구축이 목표"라며 "향후 포럼 로드맵을 정리하여 2차 포럼에는 정식 법인등록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고문단장은 "포럼 발족으로 부처님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현대에 맞게 풀어 불자들에게 참된 경제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 불교학 · 선학 접점 찾는다

대행선연구원, 7월 20일 제4회 계절발표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불교학, 선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7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대행선과 인도철학 · 유식과의 접점을 살핀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심준보 금강대 교수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과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 개념의 비교' 를 소개하며, 안유숙 동국대 교수는 '대승유가행파의 유식관법과 대행선사의 한마음 수행법에 관한 비교 고찰' 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백도수(능인대학원대), 심재관(상지대), 김성철(금강대), 김재권(능인대학원대) 등이 참석한다.

대행선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선학 · 불교학 관련 중견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봄 · 여름 · 가을 · 겨울 4번에 걸쳐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발표 ·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관심있는 불자와 관련 전공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법현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





저자 — **무상 법현** 스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고 함께 하는 이들이 강건하고 화평하시기를 삼보님께 축원 드립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과 일본 나가노 금강사, 인천공항 세계선원에서 전법교화하는 무상 법현 인사드립니다.

«법현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詩»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우리말 글로 새김하였습니다. 사진을 많이 넣고 부처님 게송에 댓글 풀이도 아주 조금 넣어서 읽기 편합니다.

책상 위에 두거나 가방, 주머니 등에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쪽을 열어보아도 좋습니다.

부처님 게송이 아주 좋고 법현스님 풀이는 체계적이며 짧아서 스님, 법사님, 불자님이나 일반인에게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언출판사
열린선원 선원장 **무상 법현** | 합장

법보시 / 구입 안내

- **법보시 용으로 100권 이상 구입 시,** 법현 스님에게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 예스24, 아마존,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한언출판사 / 정가 **7,900원**

세계인이 사랑하는 **불교 시 경전**인 **법구경**을 쉬운 우리말 글로 새기고 법현스님의 짧은 댓글과 많은 사진으로 시원하게 편집하여 손에 쏙 들어옵니다.

문 의 무상 법현 스님 **010.5245.0370**